ISSN 2093-5986(Print)
ISSN 2288-0666(Onlin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4 pp.119-129 December 2013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4.119

#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 요인

전민경‡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Min-Kyung Jeon‡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with convenience sample of 250 nursing students studying in 1 nursing college. The data were obtained from November 17 to 30, 2012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e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The mean score for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ere at the intermediate level, with the value of 3.27, 3.14 and 3.78. There were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esteem(r=0.580, p<.001),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r=0.645, p<.001) and there were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elf-efficacy(r=0.611, p<.001). The influencing factors in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were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motivation of nursing(Adj $R^2$=.479). In order to encourage nursing college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nursing college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a curriculum and program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self-efficacy.

**Key Words :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steem,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angi99@hanmail.net)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다양한 전문직종이 공존하는 의료현장에서 타 전문직과 협력하면서 독특한 간호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하여 간호의 질적 향상과 간호조직의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1]. 간호교육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간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 임상 실습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학습 뿐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경험을 가지게 한다[2].

간호에 대한 전문인으로서의 가치관은 전문직 자아개념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전문직종이 공존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학생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긍정적일 때에 생겨난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과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는 반면,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은 간호사는 생산성을 저하시켜, 간호직에 대한 만족감과 업무수행 및 질적 간호에 영향을 주게 된다[3].

전문직 자아개념의 발달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기간과 계속적인 개인의 직업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4]. 따라서 간호대학 재학 중의 간호교육은 전문직 자아개념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간호가치관과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야 한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지니고 있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이며 간호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한 정신이므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 긍정적 자아개념이 생긴다. 긍정적 자아개념은 업무의 만족을 주며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5]. 따라서 전문직 간호사로 가는 과정에 있는 간호 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형성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박상연[6]의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스스로 전문직관을 형성하고 다른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해서 환자에게 만족감을 주므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박보근[7]은 변화하고 다양해진 사회의 간호 요구에 부응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대학생 시기에 직업에 대한 진로의식 및 진로준비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취업이 잘되는 학과위주로 선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입학 후에도 학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8].

자아존중감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자기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 '높다' 혹은 '낮다'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기에 대한 평가나 자기 능력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며, 자기 수용, 자기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9].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어 간호 전문직 발전을 가져온다[10].

한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능력이 특정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혹은 믿음을 말한다. 그런데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적 지식, 가치, 기술 등에 대한 자아평가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므로[11],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황성자[12]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관련변인임을 밝혔으며, 장희정 등[13]의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관련변인임을 밝혔다. 또한, 송경애와 노춘희[14]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관련변인임을 밝혔다,

이상의 고찰에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12][13][14].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단편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부 변수만을 다루거나 그들 간의 관련성만을 보고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위한 제 변수의 설명력 정도는 분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결과는 일부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직 자아개념을 영향을 미치는 고취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 개념을 포괄하지 못하여[15] 결과 분석의 제한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일반적 특성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 및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전문직 자아개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간호의 학교교육과 실습현장 교육의 발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Ⅱ.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U시 소재 1개 3년제 간호과에 재학 중인 1, 2,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 power 3.1.3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위하여 유의수준 (α) 0.05, 효과크기(f) 0.10, 검정력(1-β) 0.95일 때 적절한 표본수가 226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260부를 배부하여 256명 자료수집 하였으며,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250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0월 17일에서 10월 30까지 이었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대상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구한 후 개별적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이었다

### 4. 연구도구

#### 1) 자아존중감

Rosenberg[9]가 고안한 Self Esteem Scale(SES)를 전병제[16]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점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는 Cronbach's α=.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이었다.

#### 2) 자기효능감

Sherer와 Maddux 등[17]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정애숙[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7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정애숙[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이었다

#### 3) 전문직 자아개념

Arthur[3]가 개발하고 송희란[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점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3 이었다.

###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t-test, ANOVA 및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계수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일반적 특성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은 여자가 234명(93.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나이는 20세 이하

가 138명(55.2%), 21-25세가 34.8명(34.8) 이었으며, 종교는 없음이 113명(45.2%), 기독교와 불교 각각 57명(22.8%), 천주교 20명(8.0%) 순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92명(36.8%), 2학년이 81명(32.4%), 1학년이 77명(30.8%)이었고, 임상실습 경험유무는 있음이 180명(72%), 없음이 70명(28.0%)이었다. 임상실습 경험 기간은 5-10주가 86명(36.8%), 11주 이상이 92명(34.4%), 4주 이하가 72명(28.8%)이었으며, 실습경험 부서는 5개 이하가 155명(62%), 6개 이상이 95명(38%)이었다. 간호학 지원 동기는 자신의 의지가 106명(42.4%), 취업보장이 82명(32.8%),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가 49명(19.6%)의 순이었다. 졸업 후 희망 분야는 임상간호사가 192명(76.8%), 보건소간호사가 21명(8.4%), 기타가 20명(8.0%)의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0)

| Variables | Categories | n | % |
|---|---|---|---|
| Gender | Female | 234 | 93.6 |
| | Male | 16 | 6.4 |
| Age | 20> | 138 | 55.2 |
| | 21~25 | 87 | 34.8 |
| | 26~30 | 19 | 7.6 |
| | 31< | 6 | 2.4 |
| Religion | No religion | 113 | 45.2 |
| | Protestant | 57 | 22.8 |
| | Catholic | 20 | 8.0 |
| | Buddhism | 57 | 22.8 |
| | Other | 3 | 1.2 |
| Grade | Freshman | 77 | 30.8 |
| | Sophomore | 81 | 32.4 |
| | Junior | 92 | 36.8 |
| Clinical practice | No | 70 | 28.0 |
| | Yes | 180 | 72.0 |
| Period of clinical practice | 4weeks> | 72 | 28.8 |
| | 5-10weeks | 86 | 36.8 |
| | 11weeks> | 92 | 34.4 |
| Department of clinical practice(Number) | 5> | 155 | 62.0 |
| | 6< | 95 | 38.0 |
| Motivation of nursing | Aptitude/Interest | 106 | 42.4 |
| | Advice of parents or teacher | 49 | 19.6 |
| | Job possibility | 82 | 32.8 |
| | Grade/score | 5 | 2.0 |
| | Opportunity of community service | 4 | 1.6 |
| | Other | 4 | 1.6 |
| Course after graduation | Clinical nurse | 192 | 76.8 |
| | Occupational health nurse | 11 | 4.4 |
| | Health teacher | 6 | 2.4 |
| | Public health nurse | 21 | 8.4 |
| | Other | 20 | 8.0 |

##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문직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는 평균 98.06±10.33(최소값:75, 최대값:120), 평균평점 3.27±0.34 이었으며(척도범위: 1-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1.44±4.65(최소값:14 , 최대값:40 ), 평균평점 3.14±0.47(척도 범위: 1-5)이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평균 64. 32±8.76 (최소값:40, 최대값:85), 평균평점 3.78±0.52 이었다 (척도범위: 1-5)<Table 2>.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총 임상실습 주수(F=3.391, p=.035), 간호학 지원동기(F=2.2446, p=.03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총 임상실습 주수, 간호학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문직자아개념과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도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589, p<.001),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도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645, p<.001)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11, p<.001)<Table 4>.

## 5.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 요인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직 자아개념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간호학 지원 동기, 총 임상실습 주수와 전문직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공차한계는 0.627~0.999로 모두 0.1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595~1.001으로 10보다 적었으며, 상태지수는 4.553~22.599로 30보다 적었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β=.453, p<.001), 자기효능감(β=.309, p<.001)과 간호학 지원동기(β=.094, p=.042)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479로 설명력은 47.9%이었다<Table 5>.

<Table 2> Degree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250)

| Classification | Items | Observed range (min~max) | Mean ± SD | (Mean±SD) /item | scale range |
|---|---|---|---|---|---|
| Professional Self-Concept | 30 | 45(75~120) | 98.06 ± 10.33 | 3.27 ± .34 | 1-4 |
| Self-esteem | 10 | 26(14~40) | 31.44 ± 4.65 | 3.14 ± .47 | 1-4 |
| Self-efficacy | 17 | 45(40~85) | 64.32 ± 8.76 | 3.78 ± .52 | 1-5 |

<Table 3> Degre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250)

| Variables | Categories | professional self-concept | | |
|---|---|---|---|---|
| | | mean±SD | t/F | p |
| Gender | Female | 101.36±10.67 | -1.329 | .185 |
| | Male | 97.83±10.29 | | |
| Age | 20> | 98.14±10.28 | 1.203 | .309 |
| | 21~25 | 97.25±10.18 | | |
| | 26~30 | 101.95±10.75 | | |
| | 31< | 95.50±11.81 | | |
| Religion | No religion | 97.18±9.89 | 1.979 | .098 |
| | Protestant | 97.18±10.32 | | |
| | Catholic | 100.15±10.43 | | |
| | Buddhism | 99.26±10.88 | | |
| | Other | 111.33±7.57 | | |
| Grade | Freshman | 96.82±9.20 | 2.871 | .059 |
| | Sophomore | 100.30±11.52 | | |
| | Junior | 97.13±7.57 | | |
| Clinical practice | No | 96.29±9.08 | -1.829 | .069 |
| | Yes | 98.75±10.71 | | |
| Period of clinical practice | 4weeks> | 96.50±9.20 | 3.391 | .035 |
| | 5-10weeks | 100.36±11.34 | | |
| | 11weeks> | 97.13±9.89 | | |
| Department of clinical practice (Number) | 5> | 98.57±10.58 | 1.006 | .316 |
| | 6< | 97.22±9.90 | | |
| Motivation of nursing | Aptitude/Interest | 100.29±9.94 | 2.446 | .035 |
| | Advice of parents or teacher | 96.59±11.10 | | |
| | Job possibility | 95.61±9.87 | | |
| | Grade/score | 101.60±11.08 | | |
| | Opportunity of community service | 98.25±7.50 | | |
| | Other | 102.50±12.37 | | |
| Course after graduation | Clinical nurse | 98.81±10.16 | 2.278 | .062 |
| | Occupational health nurse | 95.00±9.88 | | |
| | Health teacher | 89.33±4.26 | | |
| | Public health nurse | 94.48±10.70 | | |
| | Other | 98.90±11.54 | | |

<Table 4> Correlation for self-esteem, self-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n=250)

| Categories | Professional Self-Concept r(p) | Self-esteem r(p) | Self-efficacy r(p) |
|---|---|---|---|
| Professional Self-Concept | 1 | .589(<.001) | .645(<.001) |
| Self-esteem | | 1 | .611(<.001) |
| Self-efficacy | | | 1 |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professional self-concept

| Variable | B | SE | β | t | p | Collinearity statistics | | Adj R² | F | p |
|---|---|---|---|---|---|---|---|---|---|---|
| | | | | | | Tolerance | VIF | | | |
| Self-esteem | .535 | .068 | .453 | 7.843 | <.001 | .627 | 1.595 | .479 | 77.262 | <.001 |
| Self-efficacy | .686 | .128 | .309 | 5.353 | <.001 | .627 | 1.595 | | | |
| Motivation of nursing | .869 | .426 | .094 | 2.043 | .042 | .999 | 1.001 | | | |

## Ⅳ. 고찰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찰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는 4점 만점에 3.27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정옥 등[20]의 연구결과 2.70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는 간호대학생인 경우 미래 자신의 직업이 될 간호직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14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2.99로 나타난 이정인[21]의 연구 결과와 3.10로 나타난 황성자[12]의 연구결과, 3.43으로 나타난 정하윤과 정귀임[2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김명숙[23]의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에서의 3.84보다 다소 높았다. 대체로 간호학생들은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자아존중감을 잘 유지시켜 주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3.78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김명숙[23]의 연구결과 3.44, 황성자[12]의 연구결과 3.52와는 유사하였으나, 이정인[21]의 연구결과 2.80로 나타난 것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는 간호학의 경우 이론수업에 연계된 실습의 경험으로 인해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보다 높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총 임상실습 주수, 간호학 지원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송희란[19]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 따라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송경애와 노춘희[14]의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근무경력에 따라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자기 자신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것[5]으로 타인의 의지가 아닌 자기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긍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라는 학자들[3]의 견해에 부합하는 결과로 간호학을 자신이 선택한 경우 간호직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정서적 느낌과 견해를 가지게 되어 보다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교육적 지식과, 관리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간호를 위해 요구되는 환자와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실습동안 전문직으로써의 긍정적인 느낌

과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성 고취를 위해 스스로가 갖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실습현장의 체계적인 실습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직 실무와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및 질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전략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r=.589, p<.001)는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송경애와 노춘희[1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가 r=.5739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개인의 자아체계는 전문직 자아에 영향을 미치므로[10]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것[24]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r=.645, p<.001)는 중정도의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8][13]에서 두 변수간의 관계가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말하는 것[25]이고, 전문직 자아개념의 구축은 전문직 지식, 가치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아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11]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아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의 발달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r=.611, p<.001)는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명숙[23]의 연구결과(r=.40, p<.001)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해주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간호학 지원동기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Adj $R^2$=.47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명숙[23]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것과 유사하였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흥미를 통해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간호직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느낌과 견해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이 바람직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과 견해를 가지게 되므로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은 다른 전문직과 조화를 이루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여 환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므로[6], 이러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논의해 보았을 때,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교 교육과 임상실습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립과 발달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간호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는 3.2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정도는 3.14, 자기효능감 정도는 3.78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도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학 지원동기가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직에 대한 확신과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업무수행 및 질적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임의 표출법에 의해 선정하여 특정 그룹에 표본 수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른 지역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1. J. Trofino(1995),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health care, Nursing Management, Vol.26(8);42-49.
2. S.H. Yang, O.C. Lee, W.S. Lee. J .Yoon, C.S. Park, S.J. Lee(2009), Critical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3 Nursing Colleges with Different Education Method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5(2);149-158.
3. D. Arthur(1995),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15;328-333.
4. J.W.K. Geiger, J.S. Davit(1989),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Vol,19(12);50-58.
5. D. Arthur(1992),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19(12);712-719.
6. S.Y. Park(1995), The Effects of Assertiveness Training and Value Clarification Training on Nurse's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Mode, The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Vol.2(1);41-72.
7. B.G. Park(2001), A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M. S.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pp.4-39.
8. S.Y. Park, J.K. Kim, T.Y. Lee(2011),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Volunteering 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Contents Society, Vol.11(2);376-384.
9. M. Rosenberg(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326.
10. Y.M. Kwon, E.J. Yeun(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285-292.

11. B. Kelly(1992),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undergraduates and Their perception of Influential Force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1(3);121-125.
12. S.J. Hwang(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2);206-212.
13. H.J. Jang, S.O. Yang, M.O. Lee(2007),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Need for Advanced Practice Nurse among Korean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4(1);110-119.
14. K.Y. Song, C.H. Noh(1997), Survey on the Relationship Self-esteem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4(1);61-71.
15. G.H. Kim, G.D. Kim(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3(2);229-236.
16. B.J. Jeon(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e-ability, YONSEI Nonchong, Vol.11;107-130.
17. M. Sherer, J.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W. Rogers(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663-671.
18. A.S. Jung(2007),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elf-efficacy in General Hospital nurse, M.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pp.16-41.
19. H.R. Song(2010),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ing perception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M.S. Dissertation, Eulji University, pp.11-42.
20. J.O. Kim, H.J. Kim, G.Y. Cho(2012),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edical Technology, Self 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Operating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1);1-13.
21. J.Y. Lee(2009),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College Students ,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5(2);166-174.
22. H.Y. Jung, G.Y. Jung(2013), A Study on the Suicidal Ideation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3);149-160.
23. M.S. Kim(2011),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2);159-167.
24. Y.H. Choi(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and Hopelessness in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J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25(3);549-561.
25. A. Bandur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2);191-215.

접수일자 2013년 10월 21일
심사일자 2013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1월 28일